

“군대 좀 빨리 보내주세요”

복학 시기 맞추려 2~5월 지원 몰리며 민원 빗발 ‘입시보다 힘든 입대’ 경쟁 치열... 병무청 서버 폭주

청년 취업 경쟁만 치열한 게 아니다. 군 입대로 ‘좁은 문’이 된 지 오래다. 특히 매년 2~5월은 대학 복학 시기와 맞물려 자원 입대자들이 몰리면서 원하는 시기에 가기 위해서는 재수는 기본이고 삼수, 사수까지 하는 일도 빚어지는 형편이다.

관련 업무를 맡는 병무청에는 ‘음소형’ 민원 전화가 빗발치고 ‘보내달라’는 청탁성 문의도 잇따르고 있다.

13일 광주전남지방병무청에 따르면 원하는 시기에 입영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는 자원 입대자들의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

지난해 걸려온 상담전화(126만2956건) 중 자원 입대자가 선택한 시기에 현역병으로 갈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전화가 25만1227건(19.9%)에 달했고 인터넷 상담(4만1102건)도 20.5%(8429건)를 넘어섰다. 특히 12월~3월까지 4개월간의 전화·인터넷 상담 비율이 각각 42.27%, 60.4%에 이를 정도다. 올해도 다르지 않아 자원 입대자들이 선호하는 시기(2~5월) 내 입영 경쟁률도 지난해 3.8대 1에서 올해 4.3대 1로 높아졌다.

당장, 내년 입영 희망 시기 신청이 시작된 12월에는 전국의 지원자가 관련 사



광주·전남 3월 입대 경쟁률

육군.....9 대 1
공군.....9.7 대 1
동반입대.....12.1 대 1

이트에 집중되면서 병무청 직원들의 일부 전산작업에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다. 취업·경제난 등으로 군 복무를 서둘러 마친 뒤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려는 자원 입대자들이 적지 않은데다, 이왕이면 차분하게 계획을 세워 군 생활에 적응하는 게 낫다는 분위기도 한몫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입대 시기를 단축할 수 있는 해·공군, 육군 특기병 등 자원 입대 경쟁은 더 심하다. 3월 입대가 가능한 자원 입대 경쟁

률은 광주·전남지역만 ▲육군(9대 1) ▲공군(9.7대 1) ▲동반입대(12.1대 1) 등 모집 정원을 훨씬 초과한 상황이다. 친척이나 친구, 선배들이 한달 한달 시에 같은 부대에 입대해서 한달 한달에 제대하는 ‘동반입대’의 경우 낯선 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인기가 식을 줄 모른다.

동반입대 경쟁률은 지난해 같은 시기 육군 특기병 모집정원 경쟁률(12.7대 1), 해군(9.6대 1)보다 높은 10.6대 1에 달했고 올해도 사정이 나아지지 않았다. 병무청이 지난해 자원 입대자들의 편의를 고려하는 방향으로 입영 대상자 선발 방식을 변경했음에도, 입대 경쟁은 여전히 뜨겁다.

치열한 ‘입영 경쟁’에 밀려 휴학을 하고도 군대에 가지 못하는 젊은층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최현준(20)씨는 “지난해 10월 대학 친구와 동반입대를 신청했는데 떨어졌고, 한 달 전 현역병 본인선택에서도 친구만 합격했다”며 “휴학하고 집에만 있으면 부모님 눈치가 보여 아르바이트를 구하면서 운전병 지원도 함께 알아보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광주전남지방병무청 한 관계자는 “매년 1~5월이면 지원자들이 몰리는 경향이 있어 2~5월 지원자들의 경우 신청을 받은 뒤 추첨을 통해 선발하고 있지만 모두 만족시킬 수 없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짚풀공예 신기해” 13일 광주시 북구 건국동 짚풀공예체험학습장에서 열린 짚풀공예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한 초등학생들이 어른들로부터 짚풀을 이용한 새끼꼬는 방법을 배우고 있다. /최현준기자 choi@kwangju.co.kr

안산 인질범 검거...아내 전 남편·의붓딸 살해 이석기 상고심 22일째 선고

별거 중이던 아내를 불러달라며 의붓딸 등을 인질로 잡고 5시간여 동안 경찰과 대치해 온 40대가 흉기를 휘둘러 아내의 전 남편과 의붓딸 등 2명이 사망했다.

경찰은 인질범과 대치 끝에 집안으로 강제 진입했지만 인명피해를 막지 못해 작전 실패의 책임을 면치 못하게 됐다.

13일 오전 9시 36분경 경찰 112상황실로 “재혼한 남편이 ‘전남편(49) 사이에서 낳은 두 딸을 인질로 잡고 있다’고 협박 전화를 걸어왔다”는 A(44)씨의 신고가 접수됐다.

안산시 상록구 A씨 전 남편 B씨의 다세대주택으로 출동한 경찰은 A씨의 두 딸 등을 흉기로 위협하는 김모(47)씨와 대치한 채 협상을 들어갔다. A씨는 현장에 와서 김씨와 전화통화를 통해 인질범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지만 김씨는 흥분한 상태로 욕설과 고성을 계속 퍼부어댔다.

A씨는 현장에 와서 김씨와 전화통화를 통해 인질범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지만 김씨는 흥분한 상태로 욕설과 고성을 계속 퍼부어댔다. /연합뉴스

오후 들어 김씨는 A씨와의 통화에서 ‘B씨와 딸을 흉기로 찔렀다’고 주장했고, 대기하고 있던 경찰특공대는 협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출입문과 창문 등을 통해 집안으로 강제 진입했다.

김씨는 바로 검거됐지만, 집 안에는 흉기에 찔려 숨진 B씨와 피를 흘리고 쓰러진 막내딸(16)이 발견됐다.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진 막내딸은 결국 숨졌다.

나머지 딸 1명과 B씨의 지인으로 추정되는 40대 여성 등 2명은 무사한 상태이나, 정신적인 충격으로 아무런 진술을 하지 못하는 상태다.

경찰은 무려 5시간여 동안 대치하면서 인질범을 중단할 것을 설득했지만 이 과정에서 김씨와 A씨, B씨간 정확한 관계조차 파악하지 못했고 경찰특공대 투입 시기를 놓쳐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이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의 상고심을 이르면 오는 22일 선고할 전망이다. 대법원이 심리 중인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은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정당해산심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현재는 통진당 활동의 위헌성 등을 판단할 때 이 사건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있다.

대법관들은 기존 사건 기록과 추가 제출된 현재 결정 요지 등을 검토해 조만간 최종 판단을 내릴 전망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오는 22일 선고가 유력하다”며 “피고인들의 구속 만기를 고려하면 늦어도 2월12일에는 선고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합뉴스

일하던 카페 든 슬쩍 데이트비 사용

○---여자친구와의 데이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일하던 커피숍 금고에 손을 댔다. /연합뉴스

○---13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대학생 강모(19)군은 지난해 9월 12일 새벽 2시께 광산구 월계동 손모(여·29)씨가 운영하는 D카페 금고에서 현금 5만 원을 훔친 것을 시작으로 지난달 26일까지 최소 15차례에 걸쳐 160여만원을 훔친 혐의.

○---월말에 손익을 정산하던 중 차액이 100만원 이상 발생한 사실을 깨달은 주인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카페에 설치된 CCTV를 분석해 강군의 범행을 확인했는데, 그는 경찰에서 “여자친구에게 선물도 하고 맛있는 것도 사줄 음식에 가끔 손을 댔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꺼내 쓴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때늦은 후회.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외환거래 투자 수익금 미끼 89억원 가로채

순천경찰 3명 적발

순천경찰청은 13일 외환거래에 투자해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거액을 가로챈 혐의(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 사기 등)로 신모(57)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강모(여·5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신씨 등은 지난 2009년 12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순천시 조례동 한 원룸에 사무실을 마련해 “매월 원금의 3%를 수익금으

로 지급하겠다”며 투자금을 89억원을 끌어모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 중 많게는 13억원까지 투자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신씨 등은 1년 이상 수익금을 지급하기도 했지만 투자금 대부분을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돌려막기’ 끝에 새로운 투자자들에게는 수익금을 주지 못하면서 범행이 탄로 난 것으로 알려졌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연신 아들 쓰다듬고 눈물...軍문화 바뀌었지만 불안감 여전

31사단 입영소 풍경

“인터넷에서 훈련 모습 확인
수시 연락 가능...걱정 안해”

시대가 달라졌다는데 입영소 풍경은 달라진 게 없었다. 지식을 보내는 어머니의 눈물도, 군대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도 크게 달라지지 않은 듯했다.

13일 광주시 북구 삼각동 육군 제 31사단은 현역 및 상근예비역으로 입대하는 248명의 젊은이들과 가족 등 1000여 명이 몰리면서 북적였다.

이날 입소식은 군악공연, 신병교육 소개, 간부소개 등 2시간 넘게 진행됐다.

귀한 아들을 보내는 부모들은 연신 아들의 얼굴만 쓰다듬고 헤어질 시간이 가까워지면서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아버지들은 먼발치에서 아들과 어머

니의 모습을 지켜보는 풍경도 쉽게 눈에 띄었다.

지난해 전국을 충격에 빠트린 ‘윤일병 사건’ 이후 군부대 내 가족행위가 잇따라 터져나오면서 폐쇄적이고 부정적인 군대 문화에 대한 불안감도 여전했다. 동생을 따라왔다는 누나는 민머리의 동생을 붙잡고 “혹시 무슨 일 생기면 참지 말고 꼭 연락해”라는 당부도 여러 차례 했다.

서울에서 왔다는 이모(여·46)씨는 “구타와 가족행위가 많이 알려져 많이 개선됐다고 하지만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채 숨겨진 것들도 많지 않겠나”며 불안을 감추지 못했다. 입대할 손자를 따라 온 서모(여·78)씨도 “혹시 내 손자한테도 무슨 일이 터지지 않을까 불안해 늙은 내가 대신 가주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윤일병 사건”으로 끓었던 군대 문화가 바뀌었으니 훨씬 나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는 가족들도 적지 않았다.

김모(50)씨는 “그 사건 이후 많이 바뀌어 군대도 더 이상 숨겨져야 할 것이 없고 부대 스스로 조심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동생을 보내는 나모(여·23)씨는 “이제 인터넷 카페에서 훈련하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고 부대에서도 SNS와 전화통화처럼 수시로 가족과 연락할 수 있게 돼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31사단도 적극적으로 가족들을 안심시키고 나섰다. 부대는 이날 신병교육 과정 및 자식들과 함께할 간부들을 가족들 앞에서 한 명씩 소개하는 등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부대”라는 이미지를 심는데 힘을 쏟았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신축원룸 매매

전대정문 2분!
전대후문 2분!
신축 4층

룸12개
1층점포1개
2-3층 룸 10개
4층주택 1개
옥탑
울 대리석시공, 신축
월수익 500만
매가 6억6천
(보4천, 용자1억2천)

- 1. 전대정문 1분코너 룸21개 월 7억5천
- 2. 용봉지구코너 룸 21개 (1층상가, 4층주택) 매 11억 (토지 105평, 건180평)

010-6670-9800

상가건물매매 7층 사우나건물

북구 구호전사거리 중심상가 7층
대지 100평/건물 580평
월수익 1,000만
주인 직접 운영 시
1,800만 수익 발생
매가 13억(보 2억, 용 6억)

1. 나주 2층 학원 상가건물 1층 6칸, 2층 4칸 영강초교앞 월 수익 200만, 매가 2억8천	4. 수원지구 1층 18평 대방 5차APT후문(임대가능) 매가 3억5천
2. 서구 치평동 상무지구 5층 보 2억, 월수익 1,000만 매가 20억	5. 수원지구 4층중 3층 85평 보 2천, 월 200만, 용 2억5천 매가 3억5천
3. 목포 용해동 전원주택 매매 대지 310평/건물 2채 매가 2억8천	6. 수원지구 4층중 3층(62평) 롯데마트 대로변(보 2천, 월 150) 매가 2억5천

한신공인중개사 062-527-7600

나주2층상가 건물매매

나주 삼영동
영강초교 앞 2층
영신중·영산중교
대덕아파트 앞
건물 135평, 1.2층 80평
1층-6칸 2층-2칸
(80평 개인사용가)
(분할가능, 주택가능)
월 200만, 용 1억
매가 3억2천
할인 -> 2억8천

목포 전원주택 매매

목포시 용해동 전원주택
바닷가 5분, 용해동교회
이루시장 1분
금호타운 아파트 바로 앞
노후주택 적합
대지 310평, 주택2채 50평
현 무화과 식재 됨, 과수원
매가 3억 2천
할인 -> 2억8천

010-6832-9700

상무지구 사무실임대 5층(100평)

- ①서구 치평동 중심도로 이면코너 (현대자동차위)
- ②주차장 고정완비 E/L 시설됨
- ③임대료 보3천 130만 (상무지구서 제일 저렴함)
- ④사무실임대 치평동 우리은행위 학원, 모든업종가 50평, 고정주차있음 시설비, 리모델링 2천 60만

010-6670-9800
062)382-5500

경매교육 (개강) 제1기

한국경매학원(상무) (상무지구 오피스)

- ① 기본 경매 강의
- ② 바로 실천 실시

평생실전스터디반 (입찰부터~매매임대 리모델링)
매주 수요일 10시
010-6670-9800

경매교육 (운암동) 대한경매학원

운암동 문화예술회관 육교앞 현대빌딩 8층
매월 (금, 토) 개강
⑤ 오전10시~오후 7시
⑥ 오전10시~오후 2시

기본반 · 고급반
실전반 · 평생실전반
062-513-4900

(주)대신경매 추천물건

근린시설 · 근린주택

- ① 서구 화정동 (토 372㎡, 건 1255㎡) 감평가 10억 최저가 5억7천
- ② 동구 동명동 (토 838㎡, 건 2190㎡) 감평가 17억 최저가 9억5천
- ③ 장성군 삼계면 (토 1068㎡, 건 631㎡) 감평가 2억5천 최저가 1억4천
- ④ 동구 대인동 (토 105㎡, 건 106㎡) 감평가 1억4천 최저가 1억4천
- ⑤ 동구 계림동 (토 445㎡, 건 1558㎡) 감평가 10억 최저가 7억5천
- ⑥ 북구 운암동 (토 273㎡, 건 247㎡) 감평가 2억4천4백 최저가 1억7천3백
- ⑦ 북구 중흥동 (토 133㎡, 건 253㎡) 감평가 1억7천6백 최저가 1억1천3백
- ⑧ 남구 서동 (토 306㎡, 건 90.18㎡) 감평가 1억6천 최저가 1억1천
- ⑨ 광산구 소촌동 (토 400㎡, 건 294㎡) 감평가 3억7천 최저가 3억7천

임야

- ① 북구 매곡동 토지 451 감정 1억1천, 최저 7천8백

경매 같이 하실 분
경매학원 배우실 분 연락요망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으신 분(직원채용)

010-6670-9800, 062)382-5500